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3·4호기 기공  
100만KW급 2기, 표준原電으로

울진원자력3·4호기 기공식이 5월27일 安秉華 한전사장과 김태전 동자부 전력국장, 관련사 대표 그리고 김우연 울진군수를 비롯한 지역기관장과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북면부구리 울진원전1·2호기 인접부지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安秉華 한전사장은 치사를 통해 “원자력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전력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울진1·2호기가 전세계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에너지와 환경조건을 가장 잘 조화시키고 발전설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로 미국의 파워인터내셔널지로부터 「1991년의 발전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것도 이 지역주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내자 2조4천억원, 외자 7억8천만달러 등 모두 3조3천억원을 들여 울진1·2호기 옆에 건설되는 울진3·4호기는 각각 100만K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서 3호기는 '98년6월, 4호기는 '99년 6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선형호기에서 축적된 기술과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형 표준원전의 모델로 건설되는 울진3·4호기 건설사업은 한전이 독자적인 종합사업관리를



〈울진원자력3·4호기 기공식〉

수행한다.

한편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제작공급은 한국중공업(주), 원자로계통 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공급은 한국핵연료(주)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시공은 동아건설(주)이 토건분야를, 한국중공업(주)이 기전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울진3·4호기가 준공되면 연간 약 130억KWh의 전력을 생산, 2천170만배럴의 석유대체효과가 기대되며, 건설과정에서 연인원 약1천만명의 고용효과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적용에 따른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일 노형인 영광3·4호기와 더불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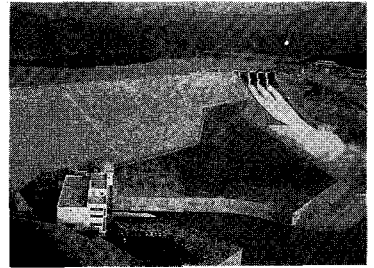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

臨河多目的댐 준공

영남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臨河多目的댐이 착공 7년5개월만인 지난 5월13일 준공되어 이날 경북 안동군 임하면 임하리 현지에서 공사관계자와 많은 현지 주민등 1천5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성대히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洛東江 중·상류에 위치한 대구, 구미등 내륙도시의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각종용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臨河多目的의 댐 건설사업은 84년12월 착공한 이래 총사업비 3천217억원을 투입하여 洛東江의 지류인 半邊川에 높이 73m, 길이 515m의 본댐과 하류 5km지점에 높이 17m, 길이 320m의 조정지댐을 축조하여 완성하였다.

이댐은 저수용량 5억9천5백만톤의 인공호수와 시설용량 5만KW의 수력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하류지역의 산업과



〈臨河 다목적댐 준공식〉

가정에 4억9천7백만톤의 각종 용수를 추가 공급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는 물론 이지역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댐은 8천만톤의 홍수조절능력을 갖추어 洛東江유역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연간 9천670만KWh의 무공해 수력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연간 13만배럴의 석유수입 대체효과도 거두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다목적댐이다.

이날 臨河多目的의 댐이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는 昭陽江, 安東, 大淸, 忠州, 陝川, 臨津江, 南江 및 住岩에 이어 9번째 多目的의 댐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3회 「물」백일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24일부터 31일까지 '92년도 「물」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昭陽江 多目的의 댐등 6개댐지역에서 제3회 「물」백일장 행사를 가졌다.

이와 병행하여 5월1일부터 30일까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자원 보전노력과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방지 활동의 수범사례 및 연구실적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물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수자원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게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K-SPEC·2000 미래토론회 광경>

한국전력기술(주)

제1차 미래토론회 개최

한국전력기술(주)는 5월15일 K-SPEC 2000 주최로 본관1층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미래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식 경영」의 저자인 이봉진박사의 초청강연도 있었는데 경영혁신을 해야하는 이유, 기술혁신에서의 한·일 비교, 엔지니어의 자세등에 관해 언급한 이 강연은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열린 미래토론회는 權麟泳 홍보실장의 사회로 입사동기회 대표등 8명의 토론참가자들이 혁신의 필요성과 목표, K-SPEC 2000추진전략, K-SPEC 2000종합추진계획의 세부내용, 선결과제 및 장애요인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포항종합제철(주)

철강 국내판매 1억톤

포항종합제철(주)는 지난 4월18일 국내 철강제품 공급량 누계 1억톤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과 로컬공급을 제외한 내수 부문만이며, '72년7월4일 조달청에 20톤의 후판제품을 납품한지 19년8개월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4월30일 현재 총판매량은 1억4천400만톤이며, 이중 국내에만 1억400만톤을 공급했는데, 주요제품별로는 핫코일 4천

100만톤, 후판 1천680만톤, 선재 900만톤, 냉연 1천360만톤, 기타제품 2천만톤이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국내 수요업체에 공급한 것은 창설이래 현재까지 건설과 조업을 병행하면서도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기본정책에 따라 생산·판매·운송 등 전분야가 합심단결하여 실천에 옮긴 결과이다.

또한 국내 철강수요업체인 동부제강과 연합철강(열연), 현대중공업과 현대조선(후판), 고려제강(선재), 현대자동차(냉연)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항제철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준 덕택이기도 하다.

앞으로 포철은 광양4기가 준공되면 연간 2천100만톤의 각종 철강재를 생산, 이중 1천500만톤은 국내에 공급하고 600만톤은 수출하게 된다.

韓·越합작 '포스비나'社 설립

포항종합제철(주)는 베트남의 남부철강연합과 50대50 합작으로 「호치민」시 교외공단에 아연도금강판 제조회사인 포스비나(POSVINA)사를 설립했다.

지난 4월에 베트남 현지에서 창립식을 가진 포스비나사는 포철과 베트남의 남부철강연합이 총 390만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종업원 105명의 아연도금강판 및 골판생산업체이며, 금년중에 두개의 도금라인을 갖추면 연산3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양사는 향후 베트남 국내 철강수요의 확대에 발맞추어 아연도금강판 이외에도 생산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철강합작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작사업의 성공은 비수교국인 베트남과의 경제교류를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양국간의 조속한 수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丁明植사장 과학기술상 수상

丁明植 포항종합제철(주) 사장은 제 25회 과학의날에 30여년간 국토건설 및 기간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조국근대화

와 국내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손순강당에서 鄭元植 국무총리로부터 올해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상(기술상부문)을 수상했다.

丁明植사장은 그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건설공사를 진두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대 강사, 한국토목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진양성과 국내 토목공학 발전에 헌신해 왔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제9회 관리자 실무연수

한국도시가스협회는 5월13일부터 16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22개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회원사관리자 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회원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사간의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대처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발전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실무연수에서 연수참가자들은 1개조 10명으로 편성, 상이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한후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습득한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의견교환으로 문제해결 능력의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각기 현장에서 체험한 문제점들을 토론하는 형식을 채용하는등 실무영역의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교육효과를 거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연수는 동자부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의 관련법규 강의도 들음으로써 연수의 알찬 목적을 거두었다.



<회원사 임직원 관리자 실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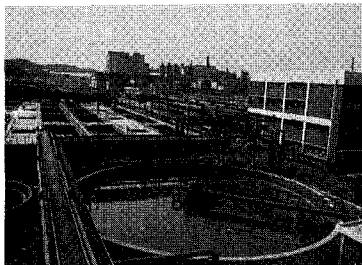
(주) 유 공

종합폐수처리시설 완공  
蔚山정유공장 환경정화앞장

油公은 26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蔚山정유공장내의 모든 정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종합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6월1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종합폐수시설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방법으로 고도의 처리과정을 거쳐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처리과정을 거친 폐수는 법정기준치를 10배이상 앞서는 깨끗한 물로 정화됨으로써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종합폐수처리시설이다.

1일처리량이 2만4천톤 규모인 이 종합폐수 처리시설은 선진국 수준의 고도폐수처리를 위해 지난 '89년 12월 선경건설과 함께 공사에 착수, 2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울산 컴플렉스 종합폐수 처리시설〉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구성된 4단계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 종합폐수처리시설에서 최종 처리된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8ppm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0ppm이하, 부유고형물(SS : Suspended Solid) 10ppm이하, 유분 0.8ppm이하, 페놀 0.5ppm이하로 정화되어 법정기준치를 거의 10배이상 앞서는 맑은 물이 된다.

그런데 울산정유공장은 이 처리폐수

중 1만4천톤을 자체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엄격한 자동측정장치의 검사를 거쳐 방류함으로써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처리과정에서 회수된 油分은 석유정제공정에 재투입되어 경비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油公의 이 종합폐수처리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환경정화와 보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湖南精油(주)

창립25주년 기념행사  
폐기물처리 공로시원 표창도

호남정유(주)는 5월19일 창립25주년을 맞아 본사(서울) 전임직원 및 그룹 회장단, 외빈, 자회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쌍둥이빌딩 동관 지하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具斗會사장은 이날 기념식사를 통해 회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영자원의 최적배분과 결함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자고 말하였다.

또한 具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알차고 힘있는 조직을 만들어 세계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여수현지 공장에서는 이보다 앞서 5월18일 전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많은 외부초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주년을 축하하는



〈창립25주년 기념식〉

기념행사가 열려 창립의 뜻을 고양(高揚)시켰다.

湖油는 본사 기념식에서 모범사원과 근속사원을 표창하는 한편 공장기념행사에서는 업무개선 창안입상자와 폐기물 처리비용절감 공로사원을 표창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운수업체 에너지절약기술 지도

에너지관리공단은 날로 늘어나는 도로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는 에너지절약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버스, 화물차량등 50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동력자원부, 각 시·도와 합동으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차량보유대수 50대이상의 약 900개업체중 시·도별로 월 10개업체를 선정, 에너지절약 기술지도를 베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기술지도에서 드러난 에너지절약 요인을 표준화한 「운수업체 에너지절약 지침서」를 마련, 900개 운수업체에 배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최초, 태양전지상용화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하에 지난 '8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연구개발이 진행돼 온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첫 개가를 올렸다.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중 범국가적 연구사업으로 추진돼 온 태양전지 상용화는 3년간의 연구기간과 30여억원의 투자로 연구를 마감하고 '92년 4월부터 생산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가동되는 태양전지 생산공장은 연간 70KW생산규모이나 올해말까지 300KW규모로 확장할 계획인데, 국내

연간수요 470KW의 70%를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외국제품과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태양전지는 낙도의 전력공급 및 도서지방의 통신용 전원, 유무인 등대, 가로등등 약 3,000개소에 국내 생산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10억원의 외화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보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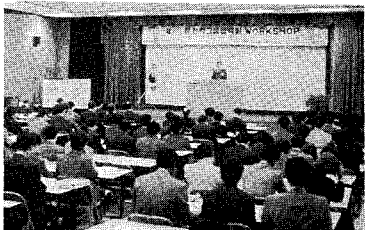
### 전력그룹협력회 워크샵

한국전력보수(주)는 5월7일~8일까지 이틀동안 한전 수안보 제2생활연수원에서 제28회 전력그룹협력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전력그룹사를 비롯한 16개 관계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설비 선진화대책」이란 주제로 발전소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등 5편의 논문발표에 이어 분임토의와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름철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참석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 워크샵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2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의 순서에 들어가자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열띤 분위기를 보였는데, 다음날 열린 패널 디스커션에서 전날 분임토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는 토론과 파고드는 듯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제28회 전력그룹협력회 워크샵>



<사우디아 장기원유도입 계약체결>

경인에너지(주)

### 사우디아와 장기원유도입 계약

경인에너지(주)는 지난 4월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장기 원유도입 계약을 맺었다.

경인에너지 하동원 전무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사의 알 사이프 부사장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에 따라 경인에너지는 하루 2만배럴의 원유를 사우디 측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이로서 경인에너지는 공장 증설이후 대폭 늘어난 소요 원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 公共法人으로 개편돼

본사 사무실 盆唐으로 이전

'85년11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주로 수도권지역에 지역난방사업을 담당해오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5월23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 개편되었다.

새 공사의 초대사장은 그동안 사장직을 맡아온 박潤明사장이 재임명되었고, 申崙秀감사, 簡榮錫, 宋鍾國, 羅鍾雄이사도 각각 재임명되었다.

한편 6월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본

사 사무실을 여의도 韓電 남서울전력관리처 7층에서 분당 신도시에 신축한 새 사옥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같이 새로운 체제정비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의 확대공급을 통해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설립목적을 구현하면서 비약적 발전의 장래가 기대되고 있다.

- 사무실이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43-14
- 대표 전화 : 0342)701-7530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사무소 여의도 新韓빌딩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사무소가 3월29일 중소기업집중공단 6층에서 여의도 주택은행 본점 옆 新韓빌딩 6층으로 이전하였다.

- 사무실이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신한빌딩 6층)
- 대표 전화 : 02)783-4405

한국핵연료(주)

### 公州에 국내 최대규모 핵연료공장 건설

한국핵연료(주)는 忠南 公州郡 儀堂面 佳山里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2 핵연료 생산공장을 건설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끝냈다.

지난 5월 한국핵연료(주)에 따르면 오는 '96년말까지 1천112억원을 들여 제2핵연료생산공장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3월 佳山里 일대 29만7천여 평방미터의 공장건설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중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